

박물관 인형극단 ‘군산알림이’ 탄생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시 상설공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형극단인 ‘군산알림이’가 새롭게 탄생해 3월 17일 오후 2시에 첫 공연을 가졌다. 자원봉사 인형연극팀인 ‘군산알림이’는 전문 연극단과랑새극단이 참여하여 그동안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해 왔다.

근대 인형극단은 쌍천 이영춘 박사의 삶을 스토리화해 인형극을 선보이게 되며 3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공연을 한다. 군산알림이 지미옥 팀장은 “군산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형극단 군산알림이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하기자(군산동원중2)



●쌍천 이영춘 박사

이영춘 박사는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1903년 10월에 태어났으며 전북 개령의 구마모토 농장에 소속된 2만여명 소작농 가족을 돌보기 위해 1935년 4월 33세의 젊은 나이에 자혜의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어 1957년에 농촌위생원 구내에 일심영아원을, 1965년에 군산에 일백영아원을 설립하여 농어촌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곳이 없는 영아들을 돌보았다. 호인 쌍천은 두 가닥의 샘물 즉,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샘물과 영혼을 치유하는 샘물이라는 뜻이다.



박물관 학생기자단 2기 본격 활동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결성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생기자단2기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6일 첫 모임을 가진 학생기자단은 군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학생기자단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올해 첫 기사를 쓰기 위해 기획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인지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조별 편성을 한 후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생기자단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취재부와 사진부, 편집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기모임은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하며 이 모임에서 각자 취재할 소재를 이야기 하고 취재계획을 나누게 된다. 신문은 ‘박물관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번씩 출간할 예정이며 군산지역 시민들에게 메일로 보내어진다.

/이제하기자(군산여고3)

●근대역사박물관 행사안내

- ☞ 근대 연극(1930 시간여행), 근대생활관(3층)
3월 16일~10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시
- ☞ 근대 인형극, 로비(1층)
3월 17일~10월 31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시
- ☞ 100년 화교특별전, 특별전시실(1층)
1월 17일~4월 21일

국무총리도 반한 박물관 근대연극 공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시 상설공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연극팀이 지난해 4월부터 공연을 시작한 이래로 인기절정을 누리고 있다.

전국 박물관 최초 시대극 공연인 ‘1930년 시간여행’은 입소문을 타고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해 관람하고 반했다는 근대연극 공연팀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에서 지게꾼 역할을 맡은 자원봉사자 장금선입니다.

Q.연극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A.작년 4월에 시작하였고, 보다 쉽고 생생하게 1930년대를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만들어 졌습니다.

Q.연극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A.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에게도 연극에 재능이 있나 싶어서 하게 되었는데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면서 열심히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Q.단원은 총 몇 분이세요?

A.총 1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공연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A.1930년대 시간여행 시대극으로써, 군산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을 다루었습니다.

Q.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다면?

A.독도는 우리땅, 우리 다함께 해 볼까요 대한독립만세!, 발은 털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털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개사)

Q.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A.작년 공연 때보다 더 나은 연기로 더 많은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비록 우수한 프로가 아니지만 더욱 프로보다 빛이 났던 자원봉사자 연극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1930년 시간여행’을 관람하고 싶은 분들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만날 수 있다.

/조근미기자(군산중앙여고1)



△근대연극팀이 1930년 시간여행속으로 연극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철새 낙원 금강하구둑 환경보전 필요

“군산을 찾는 철새는 원래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금강하구둑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2월 초, 군산철새조망대를 찾아 철새에 대해 물으니 철새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관계자분의 근심 가득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군산을 찾는 대표적인 철새 가운데 하나이자 해질녘 아름다운 군무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이지 않게 하는 가창오리 때도 이번 겨울에는 겨우 6~7만 마리만이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철새 개체수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적어도 50~70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들던 군산에 이번 겨울에는 20만 마리 정도의 철새가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철새를 보기위해 군산철새조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전주에서 모처럼만에 나들이를 나온 한 가족은 “2년 전 쯤에 들렀을 때 보았던 철새들의 모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철새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없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군산을 찾는 철새가 적어진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철새가 군산을 찾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인하여 환경에 예민한 철새들이 이동방향을 바꾸었다는 의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철새가 줄어드는 일은 단순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태환경 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면과 더 나아가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어 돌아선 철새들의 마음과 실망한 관광객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릴 대책마련이 시급히 세워져야 할 것 같다.



/오은주기자(군산여고3)

근대문화유산 간직 군산 영화촬영지 인기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8월의 크리스마스, 마이웨이, 화려한 휴가 등

근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이 영화촬영지로 인기를 끌면서 그동안 많은 영화들이 군산을 거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인 히로쓰가 살았던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타짜를 비롯해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등의 영화들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지금까지 군산에서는 드라마 모래시계, 엄마가 빨났다, 포세이돈, 제빵왕 김탁구, 영화 말아톤, 친절한 금자씨, 마이웨이, 스카우트, 8월의 크리스마스, 마더, 화려한 휴가, 퍼펙트게임 등 많은 영화들이 촬영됐다.



군산이 이처럼 영화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근대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군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영화촬영지를 관광명소로 만들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게 군산시의 과제로 남았다.

/박서린기자(군산월명중3)

나이팅게일 비밀 간직한 신흥동 일본식 가옥

외부 자객 침입 대비 마룻바닥서 새소리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쓰 가옥)에 아주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일본인 히로쓰가 사용한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 58-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약간의 보수공사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시대 베나 무명 따위의 옷감을 짜는 장사였던 히로쓰가 만든 것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아주 치밀하게 방비가 되어있는 집이다.

먼저 가옥의 입구인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징검다리 같은 돌이 정원으로 이어져 있다. 그 길로 정원에 들어가 보면 우물이 보인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커다란 석등이 놓여 있다.

건물은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건물이며 2개의 건물이 ㄱ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으며 한국의 집과 다르게 거의 미닫이 문으로 되어있다.

이 가옥의 특징은 방 하나에 문이 여러 개이며, 복도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 안에 들어 가보면 마룻바닥이 보이는데 이곳에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마룻바닥은 처음에 히노키 나무였지만 지금은 보수공사를 하며 편백나무로 바닥 재료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 마룻바닥은 자객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히로쓰의 방이나 딸의 방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나이팅게일 새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자객들이 쳐들어 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의 구조를 어지러운 미로처럼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공사를 해서 마룻바닥에서 나이팅게일 새소리 대신에 삐그덕 삐그덕 하는 소리만 날 뿐이다.

한편 나이팅게일 새는 유럽 중남부의 관목림에 사는 밤피꼬리의 또 다른 이름이며 참새목 딱새과의 새로 총 길이가 약 17cm이며 등은 갈색, 가슴과 배는 옅은 갈색이며, 꼬리는 강한 적색이다.

/김예진기자(군산신흥초5)



△정원에 세워져 있는 석등



△나이팅게일 새소리 나는 마루



△신흥동 일본식 가옥 전경

진포해양테마공원 전국 관광명소 자리매김

지난 2008년 5월 5일에 문을 연 장미동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최초로 화포를 만들어 왜선 500여척을 패퇴시킨 금강하구언의 전적지에 테마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6월부터 4,200톤급의 위봉함이 본격 개방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위봉함을 들어서면 진포대첩관을 비롯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4D영상관 및 병영생활체험관이 있다.

또한 6·26당시에 사용되었던 군장비를 전시한 전쟁유물 전시관, 그리고 갑판층의 공연무대 및 포토존 등이 설치돼 있다.

또 갑판층 상부는 해군함정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생생한 해군함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진포해양테마공원 밖에는 상륙장갑차, 자주포, F-86 전투기 등 육해공군 퇴역장비가 진열돼 있어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무엇보다 퇴역장비 안을 들여다보거나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진포해양테마공원을 찾은 시민 박모(43·수송동)씨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았는데 볼 것이 너무 많아 잘 온 것 같다”며 “아이들이 좋아해 다시 한번 와야겠다”고 말했다.

/김예은기자(군산영광중3)



●알아봅시다 -진포대첩

진포는 군산의 옛 이름이며 진포대첩은 1380년 8월에 왜구가 500척에 이르는 대선단으로 진포에 침입해 야만적인 약탈을 했을 때 이를 물리친 전쟁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왜구의 만행으로 죽은 우리 백성들의 시체가 산과 들을 뒤덮었고 약탈한 곡식을 나르면서 흘린 쌀이 한 자도 넘게 땅을 덮었다고 한다.

당시 고려는 왜구를 진압하기 위해海道원수 나세와 심덕부, 최무선 장군 등을 파견하였고 고려군은 최무선이 발명한 화포로써 공격하여 왜선 500척 모두를 불살랐다. 진포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함선에서 화포를 사용한 최초의 전투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전투로서 해전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가장 오래된 빵집 이성당 주말 2000여명 방문

추웠던 어느 날, 중앙로를 지나가다가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성당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었다.

지난 1945년에 문을 연 뒤 지금까지 한자리를 지켜온 이성당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일본인이 운영하던 ‘이즈모야’라는 화과점이다.

해방직후 이모씨가 가게를 인수하였고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이라 하여 이름을 이성당으로 지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2010년에 돌아가신 오남례씨 부부가 사들여 운영했으며 지금은 오씨의 며느리 김현주씨가 5대째 가게를 경영하고 있다.

도대체 이성당은 왜 사람들이 몰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시민 김모씨(43)에 따르면 팔에 들어간 팔이 맛있고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당 팔 맛의 비결은 팔에 유해제품을 넣지 않으며 방부제도 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성당에는 하루 평일 1000~1500명, 주말에는 2000~2500명 정도가 빵을 사기위해 찾아온다.

이곳에서는 평일 하루에 팔빵은 5500~7000개 정도, 야채빵은 1700여개 정도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주말에는 팔빵은 9000개, 야채빵을 2500여개나 만든다고 하니 입이 짹 벌어질 정도다.

이성당에서는 팔빵이나 야채빵이 나오는 시간에는 줄을 서야하는데,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20~25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성당은 한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이지만 이곳으로 인하여 군산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팔빵을 사기위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예은기자(군산중앙중1)

현장속으로

곡식 수탈 아픔 간직한 뜬다리

군산 내항에 위치한 뜬다리(부잔교). 뜬다리는 밀물 때 다리가 수면에 떠오르고 썰물 때 수면만큼 내려가는 자동수위조절 접안시설물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은 배가 항구가까이 정박할 수 없어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쪽만을 고정시켜 수위에 따라 상하로 오르내리게 한 뜬다리를 만들었다.

밀물 시에는 부두가 올라가고 썰물 시에는 부두가 내려간다. 뜬다리는 1899년 군산항 개항이후 총 6기의 부잔교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3기만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시 이 뜬다리를 통해 하루 150량 화차를 이용하여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군산시에는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뜬다리도 그 중 하나이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한국과 일본의 원하지 않는 연결다리를 해준 뜬다리.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의 상징이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과거의 아픔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간다면 언젠간 뜬다리를 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박혜영기자(군산중앙여고3)

정월대보름 풍물한마당잔치 풍성

우리나라 고유명절 가운데 하나인 정월대보름.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기만 하는 명절이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정월보름날(1월 15일)을 뜻하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많은 세시풍속이 전해진다.

지난 2월 23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제23회 계사년 정월대보름 풍물 한마당잔치를 찾아가 보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광장이 북적거렸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널뛰기,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와 부럼깨기, 떡메치기, 고구마 구워먹기 등의 먹을거리 장터, 새끼꼬기, 연과 탈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가 열렸다. 또 광장 옆 무대에서는 국악한마당, 사물놀이, 한량무, 탈춤, 선반 사물놀이, 주민 노래자랑, 정월대보름 풍물판굿 등이 펼쳐졌다.

이날 풍물한마당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소원을 담은 종이를 메달은 달집태우기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고3 수험생을 둔 김모씨는 '김문호 수능대박'이라고 달집에 자그마한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려 보내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군산시 소재 자원봉사단체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한마당잔치로 치러졌다.

/유승연기자(군산서흥중3)



군산People 군산기네스 김용연씨

영문대비 국문비율 가장 높은 영문법책 발간
군산시 가장 저렴한 사설학원 영어강좌 운영

군산시는 2010년 개항 111주년을 맞이해 군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숨겨진 자랑거리를 발굴·기록하기 위해 군산기네스를 선정했다. 군산기네스는 총 8개 분야에 109건이 선정돼 등재됐는데 한 개의 기네스에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두 개 분야에 기네스를 가진 사람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화제의 인물은 김용연 원장으로 그는 영문대비 국문비율이 가장 높은 영문법책 발간과 가장 저렴한 사설학원 영어강좌 운영으로 기네스에 선정됐다.

김 원장이 발간한 'k-one 기본영어' 문법책은 영문과 국문의 비율이 약 1:2로 국내 출간된 영문책 가운데 최고의 국문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 원장은 가장 저렴한 영어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번역과 작문전문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이는 그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무렵 한 학원에서 미군의 무료영어 강좌를 일주일에 한 번 수강하면서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해 개설한 강좌다.

특히 그는 군산기네스 선정뿐만 아니라 23년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수업을 해 주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예진기자(군산영광중2)

100년의 역사 화교, 삶과 문화 재조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국내 최초 화교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10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친구 화교’라는 주제로 화교의 삶과 문화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화교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4월 21일까지 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화교전은 박물관이 2013년을 맞아 가진 첫 번째 특별전으로 국내 최초다.

화교전에서는 화교의 생활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전통의상과 생활용품, 일상 생활사진, 명산동에 위치한 군산 화교 소학교를 소개한 자료들과 화교소학교 전 교장인 여건방 선생의 인터뷰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화교들이 사용하는 주전자와 학익선(부채), 제사용 초, 향로 같은 생활용품을 설명과 함께 세세하게 볼 수 있으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알 수 있는 글귀들이 있다.

또한 화교가 직접 만든 중국 전통의상(치파오)도 전시돼 있으며 화교소학교 교실을 재현한 것 같은 공간과 주판도 체험할 수 있어서 잘 알지 못했던 화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100년 이상 한국 사람들과 같이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군산에 화교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군산의 역사는 일본적 색채가 강해 일본만 관련지어 생각 하는 경향이 있어 엄연히 군산을 구성하는 화교들의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교란 외국에 사는 중국인 또는 그 후손들로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과 함께 우리나라에 이주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언제부터 군산에 이주해온지는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 군산에 더 빠른 시기에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화교들이 군산에 공식적인 거주를 시작한 때는 1899년 군산이 각국 조계지역으로 개항장이 되면서부터다. 일제 강점기엔 1,600여명의 화교가 군산에 거주하였지만 해방 후 귀국으로 현재는 4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들의 교육기관인 군산화교소학교는 전국에서 인천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엔 중화 상회사무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후에 학생 수가 증가해 1947년 중앙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했다.

이어 1949년 기숙사의 화재발생으로 전국 화교들의 화재복구 모금을 통해 현재 명산시장 옆 화교학교로 이 전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조은비기자(전북외고3)



“쌍십절운동회 모습”

“화교 결혼식 모습”